

목포권

면세유값 폭등 신안 출어 포기 속출

면세유 가격 폭등에 어항 부진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면서 면세유 사용량이 급감하고 있다.

1드림당 17만 6천원 거래...4개월새 40% 이상 올라

어항 부진에 인건비·어구대도 상승 어민들 '3중고'

됐다.

현재 9~18급 '돗자망(刺網) 어선'의 경우 1회 출어 경비가 70~80만원

대(선원 6인기준)에서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20% 가량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 일부 어선들은 300~400만원정도의 어획고를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안과 영광지역 300여

척의 유자망과 돗자망어선의 20~30%

가 출어경비 부담으로 병어잡이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낮아 어획 부진도 우려돼 출어 포기 어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어민들은 "면세유 가격이 오른데다 각종 어업용 자재 값도 상승 추세여서 '적자 출어'를 면키 어렵다"며 연안 어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안군 어민회 관계자는 "면세유 가격 폭등에 인건비와 어구대까지 들고 어항도 신통치 못할 것으로 우려돼 조업포기 어선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해경 특공대 "막힌 수문 뚫어라"

해경경찰 특공대원들이 저수지의 막힌 수문을 뚫어 농사일을 도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강성규(32) 경장 등 3명의 특공대원은 지난 14일 무안군 온남면 연리 저수지에 뛰어들어 막힌 수문을 열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목포 자연사박물관 '과학문화지원' 4년연속 선정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 과학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과학문화지원 사업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올해 '섬

소년들은 박물관에서 미래를 보았다'라는 주제로 사업 제안서를 응모, 3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채택돼 1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박물관은 사업비가 배정되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안·무안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울돌목의 '세번째 도전'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진도 울돌목 조류발전소가 두 차례 실패를 딛고 세번째 도전에 나선다.

진도군은 "5월중 조류의 흐름이 가장 약한 오는 26일 1천t 규모의 철골구조물 설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철골구조물은 울돌목 조류발전소의 핵심 설비다. 조류발전은 바닷물의 힘으로 바람개비 모양의 수차(水車)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데, 울돌목 조류발전소는 이 철골구조물 안에 수차를 장착해 바다 속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밀물과 썰물이 보통 바닷물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초당 5~6m 속도로 흐르는 울돌목은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거칠고 빠르게 흐른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랑대첩의 현장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이같은 빠른 물살로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구조물 설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2006년엔 철골구조물을 싣고 울돌목에 도착한 대형 바지선이 급류에 휘말리면서 인근 진도대교(높이 25m)에 부딪혔고, 2007년엔 구조물이 엉뚱한 장소에 설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공사기간이 2년이나 연장



오는 26일 울돌목에 설치될 1천 t 중량의 철골 구조물.

26일 조류발전소 건설 위한 '구조물' 설치 시도

물살 거세 2차례 실패...성공 땀 세계 최대 규모

되면서 당초 예상액(70억원)보다 두배가 넘는 200억원 안팎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이번 세번째 공사에는 최첨단공법이 동원된다. 조류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철골구조물을 싣는 바지선 주변에 13척의 대형 닻 6개를 매달아 고정시킨 뒤 외아리로 바지선을 끌어 울돌목까지 옮기고, 철제구조물 다리를 울돌목 바다 밑 암반에 8m 깊이로 박아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김성욱 현대건설 울돌목 조류발전소 건설소장은 "이번 조류발전소 건설의 성공 여부는 철골구조물의 정확한 설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동서발전, 현대건설 등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울돌목 조류발전소가 준공되면 연간 2.4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 김 풍작...1천3백여만속 생산 376억 소득

올해 진도지역 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진도지역에서는 265여가가 1천95ha에서 1천311여만속의 김을 생

산해 37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보다 522만여속이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6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김 생산이 증가한 것은 자

연재해가 거의 없고 수온도 낮아 김이 성장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유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충남 태안에서 기름 유출사고로 서해안 지역 생산물량이 줄어 마른 김 한 속 당 2천900원선을 유지해 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시 문화관 관람료 20일부터 유료 전환. 개관 이후 무료로 운영되던 '목포시 문화관'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가 20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6,7,8,9월에 한하여). 위 가격은 1인 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0% 세금이 별도 부가됩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름 일방주거지 1000평 대세대주택, 물류창고, 목차실비사실.

법원경매 전문 회사.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국민공인중개사. 한 011-635-7939, 010-3114-8103. ▶6의 시설급매▶. ▶7억 5천 고시원 급매▶.